

■ 연구원 소식

○ 2015년 3차 운영위원회의 실시

: 2015년 3차 운영위원회가 3월 6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연구원 사무국에서 열렸습니다. 부재중인 홍성덕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김건우 운영위원이 대행을 하였고, 한명수·최우영·하태진·이미경 운영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안건으로는 연구원과 전주 노숙인 센터간의 MOU체결 건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들의 이견이 없어 실무사항은 사무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홍성덕 부원장 자제 혼인

: 홍성덕 부원장의 큰아들 홍보의 군의 혼인이 있습니다. 날짜와 장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함께 축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날짜 - 2015. 03. 14(토) 13시
- 장소 - 천호본당(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천호성지길 124)

○ 연구원 춘계답사 실시

: 연구원은 2015년 춘계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답사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일제시대 수탈현장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전주대 역사문화컨텐츠학과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석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감추기 어려우시다면 연구원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날짜 : 03. 21(토) 09:00 ~ 20:00 / 장소 : 나주 영산포 거리, 광주광역시

○ 연구원 방문 인사

- 애린교회 김용삼 목사님, 김미영 전도사님께서 연구원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 금주 연구원 주간일정

[2015년]

- 03월 09일 : 주간회의 / 도서 DB기반 구축
- 03월 10일 : 도서 DB기반 구축
- 03월 11일 : 도서 DB기반 구축
- 03월 12일 : 도서 DB기반 구축
- 03월 13일 : 도서 DB기반 구축

■ 역사속의 오늘

○ 카터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 계획발표 - 1977. 03. 09

: 1977년 3월 9일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철수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당시에는 미군의 철수는 큰 혼란을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자주국방의 슬로건 아래, 대한민국 예비역 병장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노력과 현 군 수뇌부의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매년 수십조의 국방비는 어디로 갔길래...

○ 4대강이 현대판 뉴딜인가? - 1933. 03. 10

: 1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의 넘쳐나는 수요가 공급처를 찾지 못해 경제 대공황이 발생했다. 이 시기 미국의 대통령 루스벨트는 1933년 3월 10일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국가 주도 하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었다. 이것은 국민의 소비능력을 올려 경기를 부양시킨 것이다. 겉으로 이런 의도를 표방한 것이 이명박 前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

날수록 4대강 사업의 진실은 점점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 1996. 03. 11**

: 12·12, 5·18, 불법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법의 심판대에 섰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영삼 前 대통령의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특별사면 하였다. 과거 YTN 돌발영상은 전두환의 이런 말을 담았다. “요즘 젊은이들은 나한테 감정이 안 좋은가봐!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진통 - 2004. 03. 12**

: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은 집권 초반 국회에 의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다. 탄핵의 명분은 정치적 중립성이었다. 탄핵소추안 통과 소식을 듣고 “지금 이 과정은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괴롭기만 한 소모적 진통은 아닐 것” 이라고 하였다. 이런 이유로 탄핵이 되었다면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역대 대통령은 누가 있을까?

○ **누구를 위한 쿠데타인가? - 1623. 03.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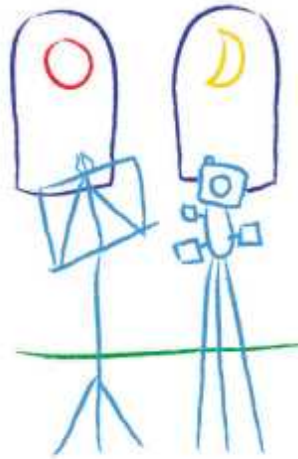
: 광해군은 임진왜란 전후 황폐화 된 국가체제를 회복에 힘썼다. 또한 명과 청의 교체기에 중립외교를 펼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일을 피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아우를 죽이고 어머니를 폐위시키는 폐모살제(廢母殺弟)로 인해 광해군은 축출되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자면 쿠데타의 성공이었다. 권력 쟁취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백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만의 잔치였을 뿐...

○ **상문고 교사들, 상문고 비리를 공개하는 양심선언 - 1994. 03. 14**

: 대학의 총학생회장 당선여부와 관련한 웃픈(웃기지만 슬픈) 말이 있다. 총학생회장에 당선되면 차가 바뀐다는... 이런 웃픈 말은 80년대 상문고에도 존재했다. 고3 담임이 되면 차가 바뀐다는... 상문고 교사들은 교육자로서의 양심과 인격,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는 양심선언을 했다. 제2, 제3의 상문고가 없어질 그 날을 기약해 본다.

○ **대한민국 부정선거 대명사 - 1960. 03. 15**

: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제5대 부통령 선거일이 밝았다. 선거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투표가 진행되었다. 총체적 부정선거 이후 국민적 저항이 일어났고 김주열 군은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마산앞바다에서 떠올랐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이승만은 하야할 수밖에 없었다.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는데 부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었다. 역사는 반복된다. 비단 과거의 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점이다.



세상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길에서 운명처럼 만나
 함께 길을 걸으려 합니다.
 돌이켜 걷는 길
 서로의 모든 것이 되기 위해
 혼례식을 차립니다.
 봄별 따스한 시간
 힐찬 내디딤이 될 수 있도록
 꼭 오셔서 앞날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덕 · 채현경의 아들 **홍보의**
 고근수 · 장애지의 딸 **고나영**



일시 2015년 3월 14일(토) 13:00
장소 완주군 비봉면 천호본당

신부측 | 2015년 3월 6일 19~21시
 피로연 | 화순 우체국 옆 2층 카페 설빙



천호본당 전북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841-2(다리실길 34-21)